

고대 중세 근세시대의 한·일 양국의 독도인식

-안용복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조 순*

(e-mail : js-2288@hanmail.net)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4.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모순점 |
| 2. 독도에 대한 한·일 간의 기본인식 | 5.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보완점 |
| 3. 일본외무성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 6. 나가는 말 |

キーワード：独島(Dokdo), 異斯夫(Isabu), 鬱陵島(Wooreungdo), 于山島(Woosando),
安兪福事件(Anyongbok's event), 領有權(Sovereignty)

1. 들어가는 말

독도는 고대 중세 근세까지는 한국영토에 대한 이의가 한·일간에 없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와 현재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독도는 512년 6월(신라지증왕 13) 울릉도를 본도로 하고 독도로 추정되는 우산도를 부속 섬으로 하는 우산국이라는 독립국을 지증왕이 이사부를 시켜 정복케 함으로써 고대부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였다.

중세인 고려시대에는 930년(고려태조13) 에 우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라는 두 사람을 사절로 하여 조정에 공물을 바쳤고, 1132년(고려 인종 10)에는 조정에 서 우산국주를 우릉성주로 바꿈으로써 우릉도와 우산도로 구성된 우산국이 완전히 중앙정부 직할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한국근현대사.

근세인 조선시대에는 1416년(조선 태종 16)에 울릉도 및 독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비워두는 공도정책을 실시하였고, 1693년(조선 숙종 19)에는 대마도주가 동래부로 조선어민의 죽도(독도) 출어 금지를 요청하는 서계를 보내오자, 조정에서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회신을 보낸 적이 있다. 1693년에는 안용복·박어둔 등 40여명의 조선 어부가 울릉도 및 독도에서 조업 중인 일본어선을 발견, 시비를 벌이다가 일본이 총으로 위협하여 무력적으로 안용복 등 조선 어부들을 일본으로 납치해갔다. 1697년 2월에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불법 월경을 금지시키겠다는 서계를 보내왔고, 이에 조정은 울릉도 수도제도를 채택하여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부속도서에 관원을 보내어 순검케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또 울릉도를 수도한 삼척영장 장한상의 『울릉도사적』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등을 참고하여 저술한 서계 박세당의 『서계잡록』에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인 우산도가 독도임을 밝혀내었다.¹⁾

독도에 대한 명칭을 보면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천산도(千山島), 자산도(子山島), 간산도(干山島) 등으로 불렸으나 조선시대 『태종실록』에서부터 공식문서와 기록에는 우산도(芋山島)로 기록되어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어왔다. 독도 지명은 울릉도 개척 당시 섬에 들어간 주민들이 '바위로 된 돌섬'이라는 뜻으로 '돌섬', '독섬'으로 부르다가, 이를 한자로 독도(獨島)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인 1900년 10월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울릉도는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 군(郡)으로 설치, 군청관할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못박았다. 1904년 8월에는 조일의정서에 의거 9월24일 니이타카(新高)호가 울릉도·독도를 답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19일 쓰시마(對馬島)호가 독도답사를 위해 울릉도에 도착하여 11월20일에는 독도에 3시간 체류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원상회복 되었다. 1952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천명하면서 독도에 일본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되었다. 이에 이듬해 4월 국립경관경비대가 독도에 상륙하여 이를 수호하였으나,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체

1) 유미림(2008) 「'우산도=독도' 설 입증을 위한 논고」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9집2호, pp.83-87.

결 시 독도를 포함하던 평화선이 12해리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 공동자원조 사수역으로 변형되며 유명무실화 되었다. 1996년 2월 일본정부 각의에서 200해 리 배타적 경제수역 결정을 공식 결정하여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이 독 도를 기선으로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전 국민적인 독도 사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1998년에는 일본이 구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EEZ경계 획 정문제와 별개로 어업협정문제를 다루자고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 9월에 는 한 일 외무장관이 신한 일 어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 함되었으며, 1999년 7월 일본자위대가 1998년 이오섬에서 실시한 3군 통합훈련 을 위해 동해상의 모국이 점령한 ‘어떤 섬’을 탈환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했음이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한 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일부 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 공식적으로 논평 발표하였고,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독도로 호적 옮기기’ 운 동을 벌이는 등 ‘독도수호운동’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영토의 귀속문제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경영해온 역사성과 현재 의 실효적으로 점유해온 것을 권원으로 삼는다. 독도는 분명 역사성과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 한국의 영토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고에서는 고대 중세, 그리고 근세의 안용복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독도인식과 일본정부 주장의 모순성과 한국정부 논리의 미비점을 보 완코자한다.

2. 독도에 대한 한·일간의 기본인식

2.1. 고대시대 독도에 대한 인식

독도는 고대시대 이래로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영토로 서 우리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즉 512년(신라지증왕 13)에 울릉도를 본도 로 하고 독도로 추정되는 우산도를 부속 섬으로 하는 우산국이라는 독립국을 지증왕이 이사부를 시켜 정복케 함으로써 고대부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에 등장하였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국가였다. 당시의 기록에는 그 영역에 관한 것이 없지만 울릉도에서 보이는 주변 모든 섬들이

통치구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²⁾ 신라가 점령한 우산국은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신라에서는 없는 토산물을 얻기위한 방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토산물의 항목은 당시의 기록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지만 조선 태종때 무릉등처 안무사로 임명된 김인우가 울릉도 주변의 소도를 둘러보고 돌아올 때 대죽(大竹) 수우피(水牛皮) 생저(生苧) 면자(綿子) 검박목(檢樸木) 등을 울릉도와 주변 소도의 토산물을 바친 것으로 보아 울릉도인들이 주변소도 영역을 자신들의 어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 소도가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산국의 영역이었다³⁾. 그러므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고대부터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대사의 한계인 문헌이 없어서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들인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으로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확실하게 방증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하여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신라가 정복한 우산국은 울릉도로 그 규모가 사방100리로 둘레로는 2만6천7백3십보로 지세가 매우 험난하여 명주에서 출발하여 이틀정도가 소요되고 풍량이 험하여 이 지역민들이 외부세력에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고하고 있다.

2.2. 중세시대 독도에 대한 인식

고려는 남쪽의 일본해적과 북쪽의 거란 침입으로 국운이 기울어져갔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토에 대한 개념이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⁴⁾

『高麗史』에서도 울릉과 무릉은 본래 2도인데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 볼 수 있다고 하여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 2개의 섬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⁵⁾ 고려시대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영토였다는 것이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하면 보이는 섬은 분명히 독도뿐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울릉도민이 독도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2) 최장근(2007)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p.115.

3) 김병우(2012) 「신라 및 고려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인식과 경영」 『대구사학』 제109집, p.23-24.

4) 최장근(2007)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p.116.

5) 『高麗史』 卷58. 地理志3. 蔚珍島條.

『고려사』는 조선시대 5대왕인 1451년(문종원년)에 만들어졌지만 정인지 등 32명의 역사가들이 왕명에 의해 만들어진 관찬사서로서 지금은 전하지 않는 『고려왕조실록』 등 당시 고려시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대시대에 이어서 중세시대에도 독도가 우리영토로 연속되는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산국에 대한 중세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즉, <① 930년(태조13) 고려 태조 13년 우릉도(지금의 울릉도)에서 사절로 백길, 토두 두 사람을 보내어 조정에 공물을 바쳤다. 이때 고려 조정에서 백길에게는 정위, 토두에게는 정조라는 벼슬을 내렸다.⁶⁾ ② 1018년(현종9) (우산국이) 동여진의 침략을 받아 항복하였으나 곧 조정에서 이완구를 시켜 피난민을 우산국으로 돌려보내고 농기구와 이물품을 전달했다⁷⁾. ③ 1022년(현종13) 동여진의 침입으로 살기가 힘들어진 백성들을 예주에 살도록 했다.⁸⁾ ④ 1032년(덕종1) 울릉도의 성주가 아들 부여잉다랑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⁹⁾ ⑤1141년(인종19) 강원도인 명주도 감창사(溟州道 監倉使) 이양실이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 본토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과실과 나뭇잎을 채취하여 조정에 바쳤다.¹⁰⁾ ⑥1157년(의종11) 명주도 감창사 김유립 파견 → 섬의 중앙 꼭대기(지금의 성인봉)에서 동으로 1만여 보, 서로 1만3천여 보, 남으로 1만5천여 보, 북으로 8천여 보에 달하고, 마을 7군데 등 보고 하였다.¹¹⁾ ⑦1242년(고종29) 무신정권기 실력자 최이(崔怡)에 의하여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 사민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풍파가 험악하여 실패를 계속 하여 파(罷)하였다¹²⁾.>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고려시대에도 우산국에서 고려조정에 토산물을 헌상하였고 고려조정에서는 관직수여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보내기도 하고 외침을 당할때는 본토로 옮겨 살게하였다. 우산국은 강릉(명주)에서 풍랑이 심하지 않은 날은 이들이 걸리지만 바다가 깊고 풍랑으로 인해 쉽게 접근

6) 『高麗史』卷1, 태조13년 癸卯 芋陵島遣白吉·土豆, 貢方物, 拜白吉爲正位, 土豆爲正朝.
 7) 『高麗史』卷 現宗13년 秋七月 丙子 以于山國被東北女眞所寇, 廢農業, 遣李元龜, 賜農器.
 8) 『高麗史』卷 現宗13년 秋七月 丙子 “于山國民, 被女眞虜掠逃來者, 處之禮州, 官給資糧, 永爲編戶.” 從之. 東西女眞阿羅大等來, 獻土物.
 9) 『高麗史』卷5, 덕종1년, 十一月 丙子 羽陵城主遣子夫於仍多郎來, 獻土物. 西女眞正朝大浦古之門等十四人來, 獻土物.
 10) 『高麗史』卷17, 인종19년, 秋七月 己亥 溟州道監倉使李陽實遣人入蔚陵島, 取菓核木葉異常者, 以獻.
 11) 『高麗史』卷 義宗11년 有羽陵島, 地廣土肥, 舊有州縣,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殿中內給事金柔立往視. 柔立回奏, “土多巖石, 民不可居.” 遂寢其議.
 12) 『高麗史』卷129, 고종30년.

할 수 없었지만 우산국은 땅이 넓고 비옥하여 조정에서는 그곳을 경영하기 위해 1157년(의종11)김유립을 파견하였다. 김유립은 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섬 가운데 큰 산이 있어 산정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해 가면 바다까지 10,000여보가 되고 서쪽으로 가면 13,000여보가 되고 남쪽으로 향해 가면 15,000여보가 되며 북쪽으로 향해 가면 8,000여보가 된다. 촌락의 기지가 7개소가 있으며, 石仏, 鐵鐘, 石塔이 있으며 柴胡 蒿本 石南草가 많이 나왔다.¹³⁾

위의 보고내용을 보면 촌락의 터가 7개있고 절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살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위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한 것은 조정의 관리로서 살기 어렵다고 한 것 같다.

이후 무신집권기에는 기존의 답사보고를 바탕으로 최씨정권 마지막 실권자인 최이에 의해 여러 차례 이주정책을 통한 기록이 있는 것¹⁴⁾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영토의 주인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남을 살펴볼 수 있다.

2.3. 근세시대 독도에 대한 인식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근세에 들어와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 리이며, <사람들이 지세가> 험함을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지증왕(智証王) 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軍主)가 되어 이르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엄으로는 복종시키기 어려우니, 가히 계교로써 하리라.” 하고는, 나무로써 사나운 짐승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에 가서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잡아먹게 하리라.”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13) 『高麗史』 卷58, 지리지12 지리:동계:울진현.

1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울진현 우산도 울릉도조.

두려워하여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13년에, 그 섬 사람들이 백길토두(白吉土豆)로 하여금 방물(方物)을 헌납하게 하였다. 의종(毅宗) 13년에 심찰사(審察使) 김유립(金柔立) 등이 돌아와서 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로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만여 보이요, 서쪽으로 가기 1만 3천여 보이며, 남쪽으로 가기 1만 5천여 보이요, 북쪽으로 가기 8천여보이며, 촌락의 터가 7곳이 있고, 간혹 돌부처·쇠북·돌탑이 있으며, 맷미나리[柴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난다.” 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 함을 듣고, 다시 삼척(三陟) 사람 김인우(金麟雨)를 명하여 안무사(安撫使)를 삼아서 사람들을 쇄출(刷出)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동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升]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상기(鄭尙驥:1678-1752)의 「동국지도」와 「해좌전도:海左全圖」 1846년에 김대건(金大建:1821-1846)이 만든 「조선전도」 등에 울릉도(서쪽) 우산도(동쪽)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태종16년(1416)에 삼척사람 김인우(金麟雨)를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安撫使)로 파견하는데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¹⁵⁾

김인우(金麟雨)를 무릉(武陵) 등지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 호조 참판(戶曹參判) 박습(朴習)이 아뢰었다.

“신이 일찍이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로 있을 때에 들었는데, 무릉도(武陵島)의 주회(周回)가 7식(息)이고, 곁에 소도(小島)가 있고, 전지가 50여 결(結)이 되는데, 들어가는 길이 겨우 한 사람이 통행하고 나란히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방지용(方之用)이란 자가 있어 15가(家)를 거느리고 입거(入居)하여 혹은 때로는 가왜(假倭)로서 도둑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삼척(三陟)에 있으니, 청컨대, 그 사람을 시켜서 가서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삼척 사람 전 만호(萬戶) 김인우(金麟雨)를 불러 무릉도의 일을 물었다. 김인우가 말하기를, “삼척 사람 이만(李萬)이 일찍이 무릉(武陵)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섬의 일을 자세히 압니다.”하니, 곧 이만을 불

15) 『태종실록』 권32, 16년(1416) 9월2일 경인.

렸다. 김인우가 또 아뢰기를, “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軍役)을 피하는 자가 혹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이 섬에 주접(住接)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적이 끝내는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하여, 이로 인하여 강원도를 침노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어 김인우를 무릉 등지 안무사로 삼고 이만(李万)을 반인(伴人)으로 삼아, 병선(兵船) 2척, 초공(抄工) 2명, 인해(引海) 2명, 화통(火通)·화약(火藥)과 양식을 주어 그 섬에 가서 그 두목(頭目)에게 일러서 오게 하고, 김인우와 이만에게 옷[衣]·입(笠)·화(靴)를 주었다.

즉, 무릉은 울릉도이며 무릉은 해상국가로서 가지권에 있는 주변의 부속된 작은 섬 까지도 위무하고 조사하는 관리로 파견한 명칭에도 유의 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인우가 울릉도를 살펴보고 온 이후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리 인식이 좀더 명확해지고 울릉도와 우산도를 구분하기 시작함으로써 조선초기부터 독도를 우산도로 인식하여 「동람도: 東覽圖」 등의 우리나라 지도에 울릉도 옆에 우산도를 그렸지만 이때는 울릉도 서쪽에 게재하였다.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의 위치에 그린 것은 안용복의 독도 지키기 활동이 있는 후에 일이다.¹⁶⁾

세종17년(1435)10월24일 기사에는 본도인 울릉도를 순초하는 과정에서 적선들이 우리 병선을 향해 공격하고 달아나자 예조 참의 황치신(黃致身)이 대마주 수호(對馬州守護) 종정성(宗貞盛)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었다.

“근일에 병조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전라도 파해관(把海官)의 급보(急報)를 보건대, ‘선덕(宣德) 9년 8월 사이에 적선(敵船) 3척이 본도(本道) 삼봉도(三峰島)로 와서 본국의 순초(巡哨)하는 병선(兵船)을 만나자, 즉시 화살을 함부로 발사하여 한 배에 실린 군인 12명을 모두 죽이고 대마주로 향하여 돌아갔다.’ 고 한다. 이 앞서 대마주 사람들이 본국 땅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와서 청하므로, 우리 국가에서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경상도의 부산포(富山浦)·나이포(乃而浦) 등처에서 편리한 대로 고기를 잡도록 허가하되, 그 나머지 땅은 내왕함을 허가하지 아니했는데, 지금 본적(本籍)이 고의로 금령을 어기고는 다른 도(道)에 함부로 가서 인명을 죽였으니, 죄는 용서하기가 어려우나 도리상 대마주 수호(對馬州守護)에게 공문을 보내니, 윗항의 도적질한 정

16) 이상태(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경세원, pp.226~227.

체(正體)를 일일이 캐물어서, 그 죄를 밝게 다스려서 그 뒷사람을 징계할 것이다. 왕지(王旨)를 받들어 예조로 하여금 수호에게 공문을 보내게 한 것은, 저들의 처치가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한 때문에 삼가 이 뜻을 족하(足下)에게 전하니, 본적(本賊)의 죄를 다스리고 회보(回報)하기를 바랄 뿐이며, 나머지 말은 많이 하지 않노라.”¹⁷⁾

위의 자료를 보면, 경상도의 부산포와 내이포에서는 허가하되 다른지역(울릉도 등)에서는 어로를 금하는 기사가 보인다.

조선 태종 16년(1416)에는 일본의 해적들이 수시로 침략하여 거주민에 약탈을 자행함으로 울릉도 및 독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비위두는 공도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3년마다 수토정책을 실시하여 영토의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이 수토정책은 1693년 3월 안용복 사건 후 1694년 장한상이 파견된 후 부터의 일이다)

또 1470년 12월 성종은 왕이 된 직후 삼봉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명하여 1476년 9월 그 섬이 울릉도가 아닌 독도임을 확인했다.(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장한상 파견 때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정이 ‘우산도’를 조선영토로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93년(조선 숙종 19)에는 대마도주가 동래부로 조선어민의 죽도(독도) 출어 금지를 요청하는 서계를 보내오자, 조정에서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회신을 보낸 적이 있다. 1693년에는 안용복·박어둔 등 40여명의 조선 어부가 울릉도 및 독도에서 조업 중인 일본어선을 발견하여 시비가 벌어졌으나 일본이 총에 의한 무력으로 안용복 등 조선의 어부들이 일본으로 납치되었다.(1877년 태정관 지령 부속문서 참조) 1697년 2월에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불법 월경을 금지시키겠다는 서계를 보내왔고, 이에 조정은 울릉도 수토제도를 채택하여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부속도서에 관원을 보내어 순검케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또 울릉도를 수토한 삼척영장 장한상의 『울릉도사적』과 서계 박세당의 『서계잡록』에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인 우산도가 독도임을 밝혀 일본인들이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7) 『세종실록』 권70, 17년(1435)10월24일 입술.

3. 일본의 외무성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어 독어 불어 등으로 독도를 자국영토인 것처럼 대내외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명 10포인트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주장: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¹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 日本輿地路程全圖)』(1864년판)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을 통해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 일본 정부는 1846년 판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정식 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다. 또한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 섬이라고 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의 문구도 기록돼 있다(자료1). 이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년)를 비롯한 일본의 관찬 고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1876년 일본 육군 참모국이 발행한 『조선전도(朝鮮全圖)』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도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전까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의 사정을 조사한 후 제출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자료2).

1877년 당시 일본의 최고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18)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현[島根県]의 지적(地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질의한 내무성에 대해 17세기 말 에도[江戸]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 등을 근거로 ‘죽도(竹島:울릉도) 외 일도(一島: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린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이 지령에 나오는 ‘일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마네 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図)」를 보면 이 ‘일도’가 송도((松島), 즉 독도라는 사실은 명백하다(자료3).

(2) 일본의 주장: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다.

한국의 입장: 독도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자료4).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돼 왔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고 기록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과 우산도가 우산국의 소속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등 한국의 많은 관찬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1770년) 등의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는 기술을 보면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은 명백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팔도총도(八道總圖)」에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자료5).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두 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국지도(東國地圖)」 등 18세기 이후의 지도는 모두 우산도를 울릉도 동쪽에 그리는 등 독도의 위치와 형태도 점차 정확해진다.

또한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에는 독도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비 개이고 구름 걷힌 날, 산의 중봉에 올라보니 남쪽과 북쪽의 두 봉우리가 우뚝하게 마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삼봉(三峰)입니다. 서쪽으로는 구불 구불한 대관령(大關嶺)의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1/3이 안되고 거리는 300여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물빛과 하늘 빛이 같았습니다.

라고 하여 독도의 존재를 확인하였다.¹⁹⁾

그리고 서계 박세당의 『서계잡록』에 있는 「울릉도」는 직접가보고 기록한 책은 아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고 승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1694년 9월2일 삼척영장(營將) 장한상이 비변사에 치보한 내용을 적은 것이고, 네 번째는 1694년 9월20일-10월3일까지 장한상이 수도한 상황을 비변사에 보고한 내용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두섬을 확연하게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²⁰⁾

(3) 일본의 주장:“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江戸] 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 번[島取藩]의 요나고[米子]주민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두 가문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독도는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있어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또는 가지어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됐다. 이렇듯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한국의 입장 :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 섬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에 “죽도(竹島:울릉도) 외에 돗토리 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

19) 장한상(1694) 『鬱陵島事蹟』

20) 유미림(2008) 「‘우산도=독도’ 설 입증을 위한 논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2호, p.84.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돛토리 번은 “죽도(竹島:울릉도), 송도(松島:독도)는 물론 그 밖에 소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해 울릉도와 독도가 돛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자료6).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즉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7세기 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4.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과 모순점

4.1.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

일본정부는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여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²¹⁾라고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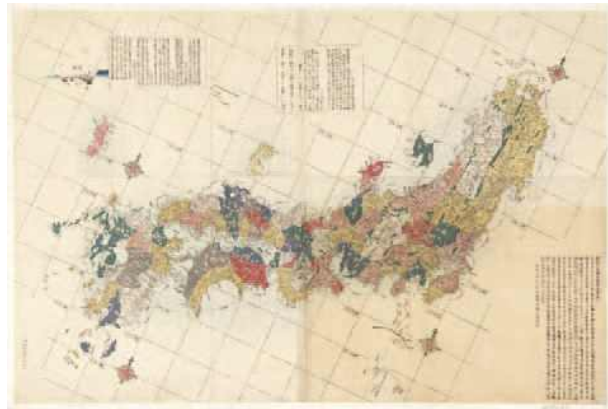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로서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를 제작하여 <Point 1: 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Point 2: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²²⁾라고 하여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고대, 중세, 근세시대에도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인 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 개의 포인트> <1번>에 <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그 근거로서 <일본이 옛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그림1).

21) 「죽도」,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22) 「죽도」,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그림 1〉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846년) (사진 제공: 메이지대학 도서관 소장)



〈그림 2〉 「다케시마 지도」 (1724년경) (사진제공 : 돗토리현립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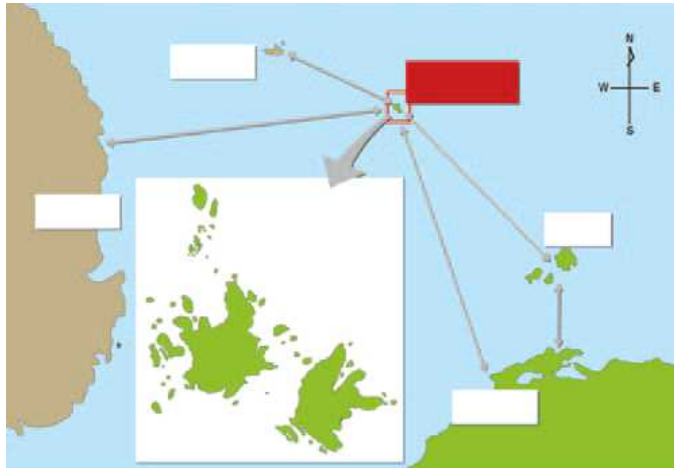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합니다.>²³⁾라고 주장했다.

지리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한일 양국의 본토에서 거리가 한국보다 일본이 8km나 더 가깝다는 것이다.²⁴⁾

23) 「죽도」,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24) 「죽도」,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독도에서 한일 양국의 본토와의 거리는 여러 책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메이지시대의 일본문헌에서는 한국보다 10리가 더 가깝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그래서 지리적으로 일본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분명히 독도에서 한일 양국의 본토에서 독도까지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한일 양국이 통일된 거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위의 일본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정부는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서 각종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개정일본여지루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초판)만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1770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② 일본정부가 제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본고가 다루려고 하는 고대, 중세, 안용복 이전의 근세시대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

③ 일본정부는 고대, 중세, 안용복 이전의 근세시대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한국영토로서의 증거자료는 부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④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로서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라고 하여 1779년에서 독도가 마쓰시마로 불리었다는 것으로 일본영토로서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⑤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합니다.>라고 하여 독도의 상세 그림지도인 <다케시마 지도> (1724년경) (사진제공 : 돗토리현립 박물관 소장)>를 제시하여 독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⑥ 지리적으로도 독도에서 본토까지의 거리는 한국보다 일본이 8km나 더 가깝기 때문에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는 것이다.

4.2.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모순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케시마’가 일본영토인 증거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부정하여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논증해보기로 한다.

① <일본정부는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서 각종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초판)만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1770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순성을 지적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초판)에는 <조선의 일부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지도와 함께 표시되어있다. 이 지도는 1696년의 ‘울릉도쟁계’²⁵⁾보다 훗날에 작성된 것이다. 이미 ‘울릉도쟁계’ 때에 막부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에 등장하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로서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② <일본정부가 제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본고가 다루려고 하는 고대, 중세, 안용복 이전의 근세시대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순성을 지적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즉,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은 고대, 중세, 근세시대에는 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일본영토가 아니었다. 반면 한국에는 후술하는 것처럼, 고대, 중세, 근세 시대에도 독도에 대한

25) 한국에서는 ‘안용복사건’ 이라함

영토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독도는 한국영토로서의 영토적 권원을 갖고 있다.

③ <일본정부는 고대, 중세, 안용복 이전의 근세시대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한국영토로서의 증거자료는 부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순성을 지적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를 가지고 ‘다케시마’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하는 영토취득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자료가 존재하면 일본의 영토취득조치는 불법이 된다. 그래서 일본은 1905년 이전에 한국영토로서의 모든 증거를 부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인식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④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로서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라고 하여 1779년에 독도가 마쓰시마로 불리었다는 것으로 일본영토로서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순성을 지적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즉, 18세기에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도가 ‘마쓰시마’라는 일본식 호칭으로 불리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본영토라는 주장이다. 영토주권은 중앙정부의 영토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불렀던 일본식 호칭이 존재한다고 해서 영토취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합니다.>라고 하여 독도의 상세 그림지도인 <다케시마 지도’ (1724년경) (사진제공 : 돛토리현립 박물관 소장)>를 제시하여 독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순성을 지적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즉, 17세기 막부에 제출한 돛토리번 답변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막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그런데 민간에서 17세기 70여년간 일본어부가 몰래 울릉도에 도항하는 과정에 독도를 보고 상세지도를 그렸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의 증가가 될 수 없다.

⑥ <지리적으로도 독도에서 본토까지의 거리는 한국보다 일본이 8km나 더

가깝기 때문에 ‘다케사마’는 일본영토라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순성을 지적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독도에서 가까운 한국영토는 울릉도이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영토는 오키섬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대략 87km, 오키섬에서는 대략 15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있고,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에는 고대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영토의식이 생겨나기 쉽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영토의식이 생겨날 수 없다. 따라서 독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영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5.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보완점

5.1.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한국정부는 <우리영토의 근거>²⁶⁾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우산국 복속>이라고 하여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습니다.>라고 한다.

②<『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여,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라고 한다.

게다가, <독도에 관한 일문일답>이라는 주제로 고대, 중세, 근세시대의 영토적 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한국의 관찬 문헌은 독도에 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관찬(官撰) 문헌이 독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

26) 「우리영토의 근거」,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찬 문헌이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문헌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①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에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다.”²⁷⁾

②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에는 “<우산도·울릉도>,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²⁸⁾

③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우산도·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²⁹⁾

④ 『만기요람』 (1808년)에는 “울릉도가 울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³⁰⁾

『증보문헌비고』 (1908년)에는 <우산도·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이다. 속(統 : 새로 추가한 내용)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³¹⁾

(2)<독도에 관해 기술한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에 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독도(松島)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는 일본의 이즈모(出雲 : 현재의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齋藤豊宣)가 저술한 책으로서, 독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온슈(隱州-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³²⁾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3)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7) 于山武陵二島在東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28)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東正東海中

29) 于山島 鬱陵島.. 二島一即于山..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30) 鬱陵島在蔚珍正東海中..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31) 于山島鬱陵島.. 二島一即芋山 統今為鬱島郡

32) 此二島 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望隱州 然則日本乾地 以此州為限矣

서는 <막부의 명에 따라 제작된 에도시대의 대표적 실측 관찬 지도인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년)를 비롯한 일본의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이 지도들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는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울릉도) 일명 이소다케시마, 마쓰시마(독도),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현재의 시마네현 동부)에서 온슈(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³³⁾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일본의 서북쪽 경계의 한계는 오키섬”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같이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존재하는 등 일본 영토와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분명합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에는 일본 논리의 모순성을 충분히 논증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한국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512년 우산국 복속이 바로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1770년의 기록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이라는 것은 1770년 경의 인식이다. 고대시대의 인식이 아니다. 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② 조선시대의 관찬문헌에 독도 즉 <우산도>가 등장한다고 해서 곧 바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것을 논증해야만이 가능하다.

③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영유권주장에 대해 일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만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자료는 일본자료와 한국자료를 포함하여 수없이 많다. 이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한국영토의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일본의 주장에만 반박하는 형식이 되어 항상 일본과 일대일 형

33) 竹島 一云磯竹島, 松島, 見高麗猶雲州望隱州

식의 논쟁이 되어 일본의 논리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 자칫하면 일본의 입장을 세워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④ 한국정부의 주장은 일본이 반박하는 논리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옳지 않다. 한국영토로서의 논리를 계발함과 동시에 독도가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조작된 일본의 논리에 대해 그 모순성을 정확히 논증해내야 한다.

5.2.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의 보완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에는 일본정부의 모순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보완적인 논리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512년 우산국 복속이 바로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 (세종14년인 1432년에 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고 이 지리지는 단종1년 1453년에 세종실록지리지에 그대로 수록됨. 그 지리지에 우산·무릉 두 섬은 신라때 우산국이라고 함. 1770년경이 아니라 조선 초기에 이미 우산도를 알고 있었음) 고대시대의 인식이 아니다. 이를 분명히 구분해야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다.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하여 지금의 독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산국의 영토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산도’는 조선시대의 명칭이다. 고대시대는 오늘날의 독도에 대한 명칭은 기록상으로 없다. 다만 사람이 거주하는 울릉도에서 독도는 바라볼 수 있는 섬이다. 일본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도도 우산국의 영토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② <조선시대의 관찬문헌에 독도 즉 <우산도>가 등장한다고 해서 곧 바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것을 논증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최장근 교수는 우산도와 울릉도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즉 <고려 말에는 왜(倭)가 ‘우산 무릉(于山武陵)’에 들어와 15일 동안 노략질했다. 그래서 태종실록을 보면, 1393년에 건국된 조선조정은 1403년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쇠환하기로 결정하고 1416년 ‘김인우를 “무릉등지(武陵等処)

의 안무사”로 파견했고, 1417년 김인우로부터 우산도(于山島)에 15호 86명이 거주한다고 보고받고 “우산·무릉도(于山武陵)”의 거주민을 모두 쇠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울릉도(武陵)등지” “우산·무릉도(于山武陵)”이라는 복수의 섬과 ‘우산도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조선조정은 김인우를 통해 사람이 거주하는 우산도를 확인했다. 또한 섬의 위치는 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처럼, 육지에서 울릉도보다 더 가까운(서쪽) 곳에 우산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김인우는 우산도만 가서 울릉도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실록을 보면, 1425년 “우산 무릉 등지의 안무사” 김인우가 남녀 20명을 잡아왔고, 1429년 조선조정은 요도(蓼島)를 찾으려 했다. 1432년에 편찬된 신찬팔도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우산(于山) 무릉(武陵)” 두 섬이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했고, 1454년의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그대로 전재했다. 즉, 조선조정은 동해에 우산도와 무릉도 2섬이 있고, 또 ‘요도’의 존재를 찾고 있었으나 ‘우산도’만 확인했다. 즉 태종과 세종시대에는 김인우가 울릉도를 보고 우산도로 착각했다. 성종실록을 보면, 조선조정은 1480년 ‘삼봉도 초무사’를 임명했고, 1481년 동국여지승람을 집필하여 “우산도, 울릉도(혹은 무릉, 우릉) 두 섬은 현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날씨가 맑으면 나무 등을 볼 수 있고, 바람으로 편하면 2일만에 도착한다. 일설에 의하면 우산·울릉이 원래 하나의 섬이라고도 한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삼봉도’라는 섬도 찾고 있었다. 즉 성종시대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날씨가 맑으면 서로 잘 보이고 왕래하는 시간은 2일이라고 인식했고, 김인우가 말하는 우산도는 울릉도로서 또 다른 섬(지금의 독도) 우산도는 아직 찾지 못했다는 인식이었다. 반면 이 시기에 일본은 독도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지만, 영토적 관심조차도 없었다. 결국 우산도는 숙종 때에 안용복에 의해 확인되었고, 일본의 막부도 1696년 정식으로 지금의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³⁴⁾라고 하여 <태종과 세종시대에는 김인우가 울릉도를 보고 우산도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③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영유권주장에 대해 일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만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자료는 일본자료와 한국자료를 포함하여 수없이 많다. 이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한국영토의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34) 최장근 「독도시론」 『대구신문』 2015년 10월2일.

지 한국정부는 일본의 주장에만 반박하는 형식이 되어 항상 일본과 일대일 형식의 논쟁이 되어 일본의 논리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 자칫하면 일본의 입장을 세워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한국영토이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영토론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한국 영토적 증거를 부정해야만이 일본영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영토론을 부정할 때,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시점의 인식을 부정한다. 예를 들면 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 ‘동람도’에 우산도(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오늘날의 위치와 다르다. 일본은 이를 악용하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단정한다. 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 시점의 ‘울릉도 동남쪽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독도와 같은 바위섬을 잘 찾을 수도 없지만, 그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동해에 조선영토로서 2개의 섬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만으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무인도였던 돌섬인 독도의 경우는 충분히 역사적 사실로서 영토적 권원이 된다.

④ <한국정부의 주장은 일본이 반박하는 논리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옳지 않다. 한국영토로서의 논리를 계발함과 동시에 독도가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조작된 일본의 논리에 대해 그 모순성을 정확히 논증해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86명에 9가구가 있다고 보고했다’라는 태종실록의 기록에 대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무런 논증을 내지 못했다. 분명히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왔다’라고 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³⁵⁾

6. 나가는 말

독도는 512년 6월(지증왕 13)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君主)로 이찬 벼슬에 있던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 고려시대에도 930년(태조 13)에는 우릉도(지금의 울릉도)에서 사절로 백길, 토두 두 사람을 보내어 조정에

35) 윗부분의 최장근의 논증을 참조바람.

공물을 바쳐서 고려 조정에서 백길에게는 정위, 토두에게는 정조라는 벼슬을 내렸고 1018년(현종 9) 1022년(현종 13) 1032년(덕종 1) 1141년(인종 19) 1157년(의종 11) 1242년(고종 29) 등에 토산물을 바치고 이주민을 보내려는 등의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수토정책 등을 비롯하여 근대까지 우리의 영토로서 역사적근원과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에는 일본정부의 모순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보완적인 논리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512년 우산국 복속이 바로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 (세종14년인 1432년에 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고 이 지리지는 단종1년 1453년에 세종실록지리지에 그대로 수록됨. 그 지리지에 우산·무릉 두 섬은 신라때 우산국이라고 함. 1770년경이 아니라 조선 초기에 이미 우산도를 알고 있었음) 고대시대의 인식이 아니다. 이를 분명히 구분해야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다.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하여 지금의 독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산국의 영토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산도’는 조선시대의 명칭이다. 고대시대는 오늘날의 독도에 대한 명칭은 기록상으로 없다. 다만 사람이 거주하는 울릉도에서 독도는 바라볼 수 있는 섬이다. 일본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도도 우산국의 영토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② <조선시대의 관찬문헌에 독도 즉 <우산도>가 등장한다고 해서 곧 바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것을 논증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최장근 교수는 우산도와 울릉도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즉 <고려 말에는 왜(倭)가 ‘우산 무릉(于山武陵)’에 들어와 15일 동안 노략질했다. 그래서 태종실록을 보면, 1393년에 건국된 조선조정은 1403년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쇄환하기로 결정하고 1416년 ‘김인우를 “무릉등지(武陵等處)의 안무사”로 파견했고, 1417년 김인우로부터 우산도(于山島)에 15호 86명이 거주한다고 보고받고 “우산·무릉도(于山武陵)”의 거주민을 모두 쇄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울릉도(武陵)등지” “우산·무릉도(于山武陵)”이라는 복수의 섬

과 ‘우산도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조선조정은 김인우를 통해 사람이 거주하는 우산도를 확인했다. 또한 섬의 위치는 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처럼, 육지에서 울릉도보다 더 가까운(서쪽) 곳에 우산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김인우는 우산도만 가서 울릉도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실록을 보면, 1425년 “우산 무릉 등지의 안무사” 김인우가 남녀 20명을 잡아왔고, 1429년 조선조정은 요도(蓼島)를 찾으려 했다. 1432년에 편찬된 신찬팔도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우산(于山) 무릉(武陵)” 두 섬이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했고, 1454년의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그대로 전재했다. 즉, 조선조정은 동해에 우산도와 무릉도 2섬이 있고, 또 ‘요도’의 존재를 찾고 있었으나 ‘우산도’만 확인했다. 즉 태종과 세종시대에는 김인우가 울릉도를 보고 우산도로 착각했다. 성종실록을 보면, 조선조정은 1480년 ‘삼봉도 초무사’를 임명했고, 1481년 동국여지승람을 집필하여 “우산도, 울릉도(혹은 무릉, 우릉) 두 섬은 현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날씨가 맑으면 나무 등을 볼 수 있고, 바람으로 편하면 2일만에 도착한다. 일설에 의하면 우산·울릉이 원래 하나의 섬이라고도 한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삼봉도’라는 섬도 찾고 있었다. 즉 성종시대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날씨가 맑으면 서로 잘 보이고 왕래하는 시간은 2일이라고 인식했고, 김인우가 말하는 우산도는 울릉도로서 또 다른 섬(지금의 독도) 우산도는 아직 찾지 못했다는 인식이었다. 반면 이 시기에 일본은 독도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지만, 영토적 관심조차 없었다. 결국 우산도는 숙종 때에 안용복에 의해 확인되었고, 일본의 막부도 1696년 정식으로 지금의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라고 하여 <태종과 세종시대에는 김인우가 울릉도를 보고 우산도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③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영유권주장에 대해 일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만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자료는 일본자료와 한국자료를 포함하여 수없이 많다. 이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한국영토의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일본의 주장에만 반박하는 형식이 되어 항상 일본과 일대일 형식의 논쟁이 되어 일본의 논리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 자칫하면 일본의 입장을 세워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한국영토이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영토론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한국 영토적 증거를 부정해야만이 일본영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영토론을 부정할 때,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시점의 인식을 부정한다. 예를 들면 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 ‘동람도’에 우산도(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오늘날의 위치와 다르다. 일본은 이를 악용하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단정한다. 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 시점의 ‘울릉도 동남쪽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독도와 같은 바위섬을 잘 찾을 수도 없지만, 그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동해에 조선영토로서 2개의 섬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만으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무인도였던 돌섬인 독도의 경우는 충분히 역사적 사실로서 영토적 권원이 된다.

④ <한국정부의 주장은 일본이 반박하는 논리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옳지 않다. 한국영토로서의 논리를 계발함과 동시에 독도가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조작된 일본의 논리에 대해 그 모순성을 정확히 논증해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86명에 9가구가 있다고 보고했다’라는 태종실록의 기록에 대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무런 논증을 내지 못했다. 분명히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왔다’라고 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영토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과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한다. 독도의 문제는 우리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있고 역사적 근원으로도 우리의 영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영토는 영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라고 알고있는일본내의 양심있는 전문가와 일반인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서, 교과서 왜곡을 통하여 일본의 자국민들을 우민화 시키고 신제국주의로 몰아넣는데 혈안이 된 일본 정부와 편향된 역사왜곡 그룹들을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 우리정부도 일본의 공격에 대한 수세적인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외교부홈피 페이스 북 등 다양하게 세계 각국에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을 갖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태종실록』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울릉도사적」(1694)
김병우(2012) 「신라 및 고려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인식과 경영」 『대구사학』 제109집, pp.23-24.
유미림(2008)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제29집2호, pp.83-87.
이상태(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경세원, pp.226-227.
최장근(2007)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pp.115-116.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죽도」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우리영토의 근거」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최장근 「독도시론」 『대구신문』 2015년 10월2일

논문 투고 일자 : 2016.03.31.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要旨>

古代・中世・近世時代の韓日両国の独島の認識

- 安龍福事件以前を中心に -

曹 錚

独島の領有権について、韓国政府は日本政府の矛盾的な主張について十分に反論していない部分がある。本稿では、これに対する補完的な論理を提示する。一：512年の于山国併合について、独島は于山国の領土であるとは言えない。

于山島は朝鮮時代の名称で、独島の名称の記録は古代にはない。また、人の住む鬱陵島からは独島が見えるが、日本からは見えない。このような理由から、独島も于山国の領土であると言えるだろう。二：朝鮮時代の官撰文獻に、独島、すなわち于山島が登場することで、独島を韓国領土だと断定している。朝鮮の朝廷は、1416年に金麟雨を「武陵等処の安撫使」として派遣、1417年には彼から于山島に15世帯86人が住んでいるとの報告を受け、「于山・武陵等処」の住民をすべて移動させることを決定した。ここで、「鬱陵等処」、「于山武陵」と呼ばれる複数の島と「于山島から帰ってきた」とされていることから、朝鮮の朝廷は金麟雨を通じて人の居住する于山島を確認したものとと言える。三：韓国政府は、日本政府の「竹島」領有権の主張に対して、日本が提示した史料に対してのみ反論する傾向がある。日本は韓国の主張を否定する際、現在の見方で過去の認識を否定する。例えば東国輿地勝覽の付属地図「東覧図」では、于山島（独島）と鬱陵島の位置が実際の位置と異なっている。日本はこれを悪用し、位置が異なるため「于山島は独島ではない」と断定している。

 The Cognizance of Dokdo Island of Korea and Japan in Times of Yore
 and the Middle Ages and Modern Times

- Focusing on the Historical Materials Before Anyongbok's Event -

Jo, Soon

The island of Dokdo is a hot politic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respond to this issue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To review historically, Dokdo island belonging to Wooreungdo has no basis in a logic to support Japan's insistence that Dokdo is their island.

1. Wooreungdo(Wooleungdo) had no proof that Dokdo island belonged to Wooreungdo. If there is no clear proof Dokdo belonged to Wooreungdo in ancient times, there also is no clear proof Dokdo belonged to Japan in the very times. Isn't there? It is more probable that Dokdo belonged to Wooreungdo. That is to say, there is comparative superiority in the probability that Dokdo has been a Korean island. 2.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Mooreung was regarded as a portion of Woosan. In this case, Mooreung means an island as closely connected to the realm of emotions and sea-faring lives of the people who lived there. There is no different island save for Dokdo around Wooreungdo. 3. Japan has only their historical records to misinterpret and insist that Dokdo is their island.

-About this, Korea has had a very passive response and attitude. Speaking more minutely, Korea only refuted it without showing many of the plain proofs that Dokdo has been our island from ancient times until now.

In addition, we must insist, showing abundant and vivid proofs instead of passive refutation only about their insistence. These are the contents I feel inclined to controvert in this study.